

# tvN 새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 '안방 복귀' 하정우, 임수정과 부부 호흡

### 첫 악역 도전 심은경 "욕이 칭찬으로 들릴 듯"

"말썽한 회사를 때려치우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음)해서 2억원으로 20억원짜리 꼬마빌딩을 사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배우 하정우는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 더링크호텔에서 열린 tvN 새 토일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 제작발표회에서 이 작품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한 인물의 처절한 생존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는 14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 되는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은 꼬마빌딩 한 채를 영끌해 매입한 생계형 건물주가 가족과 건물을 지키기 위해 가져 남치극에 가담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다. 영화 '남극일기' 등을 연출한 임필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하정우는 극 중 영끌 대출로 작은 건물을 샀지만 이자를 갚기 위해 온갖 '알바'를 해야하는 처지가 된 생계형 건물주 기수중 역을 맡았다.

그는 기수중에 대해 "꿈과 포부는 크지만 현실 감각은 떨어지는 대책 없는 인물"이라며 "갑당할 수 없는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더링크호텔에서 열린 tvN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 제작발표회에서 감독과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한, 정수정, 임필성 감독, 심은경, 임수정, 하정우. 연합뉴스

건물을 산 뒤 대출과 사채까지 끌어 쓰며 고생도 엄청나게 하고 대가를 치르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MBC 드라마 '히트' (2007) 이후 19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하정우는 "아직 실감이 잘 안 난다. 촬영할 때는 영화 촬영장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다"면서도 "방송을 시작하면 실감이 날 것 같다"고 했다. 기수중의 아내 김선 역은 임수정이 연기한다. 임수정은 "건물보다 가족을 더 중요시하는 인물로, 평소엔 남편과 티격태격하다가도 어느 순간 기수중을 도와 적극적으로

사건에 가담하게 되는 반전 매력의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다채로운 캐릭터들의 연기 변신도 눈길을 끈다. 6년 만에 국내 드라마로 복귀한 심은경은 미스터리한 인물 요나 역을 맡아 데뷔 이래 첫 악역에 도전한다.

심은경은 "제가 연기한 캐릭터 중 가장 질이 안 좋고 나쁜 인물"이라며 "시청자분들께 욕을 많이 먹을수록 칭찬이라 생각하겠다"고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여기에 야망 넘치는 기수중의 친

구 민환성 역의 김준한, 부동산 큰손의 외동딸이자 활성의 아내인 전이정 역의 정수정이 가세해 예측 불가한 전개를 이끈다.

임필성 감독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건물주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에서 출발했을 때 생기는 작은 균열이 어디까지 번져갈 수 있는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거창한 교훈보다는 시청자들이 다음 화를 예상하지 못하는 재미있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K팝 경영진, 세계 음악시장 리더 이름 올려

### 방시혁·박진영 등 '빌보드 글로벌 파워 플레이어스' 선정

하이브와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K팝 기획사 경영진이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세계 음악시장 리더 명단에 들었다.

빌보드는 9일(현지시간)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진영 JYP 설립자 겸 COO(창의성총괄책임자), 장철혁·탁영준 SM 공동대표 등이 포함된 '2026 빌보드 글로벌 파워플레이어스' 명단을 발표했다.

하이브는 방 의장을 비롯해 이재

상 대표이사, 김태호 COO(최고운영책임자), 유진진 하이브 360 사업대표, 아이작 리 하이브아메리카 의장 겸 CEO(최고경영자), 한현록 하이브재팬 대표이사 등 경영진 총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방 의장은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다섯 번째 명단에 선정됐다. 오 사업대표는 올해로 3년 연속, 이 대표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포함됐다.



왼쪽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 박진영 JYP 설립자 겸 COO. 하이브·JYP엔터테인먼트 제공

JYP에서는 박진영 COO가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명단에 들었으며, 정욱 대표이사와 신현국 JYP 아메리카 대표이사 겸 CSO(최고전략책임자)도 처음으로 선정됐다. SM은 장철혁·탁영준 공동대표와

최정민 CGO(최고글로벌책임자)를 명단에 올렸다. 탁 대표는 2022년부터 5년 연속, 장 대표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포함됐다. 이와 함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장윤중 공동대표가 2021년을 시작으로 올해 다섯 번째 명단에 들었고,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조용배·김형일 대표 등도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의 '글로벌 파워 플레이어스'는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세계 음악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들을 소개하는 명단이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는 '빌보드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다.

## BTS 광화문 공연 총관객 2만2000명으로 확대

### 추가 7000석 스탠딩석 마련 대형 LED로 관람... 12일 예매

오는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무료 복귀 공연에 추가 스탠딩석이 마련돼 총 객석 규모가 2만2000여석으로 늘어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오는 12일 오후 8시 늘(NOL) 티켓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의 추가 예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가 좌석은 세종대로 사거리 남쪽, 5호선 광화문역에서 1호선 시청역 인근까지전 구역 스탠딩으로 마련된다. 이 구역 관객은 현장에 설치된 대형 LED를 통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추가 스탠딩석은 7000석 규모로 알려졌다.

빅히트뮤직은 "좌석 규모는 현장 안전과 인파 분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추위 측은 압표 거래와 부정 입장 방지 대책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 불법 양도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



넷플릭스 제공

고 신고해 압표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부정 입장을 위해 전체 관객을 대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압표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는 추가 인증을 도입한다. 빅히트뮤직은 "자세한 본인 확인 절차는 관련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해 현장 혼잡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공연에 앞서 방탄소년단은 오는 20일 오후 1시 정규 5집 '아리랑' (ARIRANG)으로 컴백한다. 이번 공연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된다.

## '왕과 사는 남자' 제작사 "표절 주장 사실무근"

### '엄홍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아버지 작품과 유사"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한 드라마 각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 제작사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왕과 사는 남자' 제작사 온다웍스는 10일 "표절에 대한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한 바, 유사성을 주장하는 창작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창작과정에서 해당 작품을 접한 경로나 인과성이 없고, 기획개발 및 제작 과정에서 타 저작물을 표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MBN 보도에 따르면 과거 드라마 '엄홍도' 시나리오를 썼던 작가의 유족은 '왕과 사는 남자'의

주요 설정과 내용이 고인이 된 부친의 시나리오와 유사하다며 제작사에 해명을 요구했다.

온다웍스 측은 "왕과 사는 남자"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순수 창작물로, 창작의 전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는 폐위된 단종 이흥위(박지훈 분)가 강원도 영월 유배지에서 존장 엄홍도(유혜진)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 교감하며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내용을 담았다.

단종 폐위와 유배 등은 역사적 사실을 따라가지만, 엄홍도와 단종의 관계나 마을 사람들이 단종과 교감하는 모습 등은 영화적 상상력으로 채웠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사랑의 가족(재)	6: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00 TV 유치원 7:30 웃찾사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1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첫 번째 남자(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보 좋아 좋아 스페셜 11:15 찾아가는 푸라기교실 11:45 주니토너 이야기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블 8:50 종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열린TV 시청자 세상	8:20 어린 철학자 9:20 탐골스타 개칭이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2:10 손주 보러 세계일주 13:25 EBS 평생학교 16:40 어린 철학자 17:10 피파 피그 17:50 티사태의 출초고 노르웨이 19: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2026 일라노: 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하이라이트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2026 일라노: 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12:30 살림하는 남자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코드네임X(재) 16:00 TV 유치원(재) 16:30 영상앨범 산(재) 17:00 신!할방 17:15 춤비틀 엔드리스 러브 17:30 굿연 영화가 좋다	12:00 12 MBC 뉴스 12:25 연마를 부탁해(재) 13:25 헬로키즈 TV생방송2(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PD수첩(재)	12:00 SBS 12 뉴스 12:45 위시켓 매지카드 13:00 보석이네 건강 수다(재) 14:00 뉴스브리핑 15:00 테마스페셜(재) 16:00 내모세모 17:00 SBS 오뉴스 17:15 JIBS 저녁 뉴스 17:30 에니컬러리	9:00 KCTV 9시 뉴스 9:30 특별대담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12:30 문화카페 13:30 여권 토크 & 스페셜 15:00 KCTV 15시 뉴스 15:30 우리동네 히어로 시즌3 16:00 나혼자 여행지도 어디GO 17:50 어쩌다 어른 19:30 황금·침반 20:00 책 읽어주는 나의 사제
18:10 2026 일라노: 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지역 소셜 극복 프로젝트 (우리 동네) 20:30 일일연속극 미리와 빨간 아바들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AI 의학혁명 기획 생로병사의 비밀 22:50 KBS 뉴스 23:00 2026 일라노: 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18:00 경계리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20:30 슈퍼맨이 돌아왔다 21:50 슈퍼캐치 진실의 눈 22:50 말자소(재)	18:05 오늘N 19:05 첫 번째 남자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손석희의 질문들 22:30 라디오스타	18:00 생방송 투데이 18:50 뉴스원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글 매리는 그녀들 22:50 내 마음이 울음웁글 동글상담소(재)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여행기요 17:00 시사대거전 제주 17:30 박지현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민승부 20:00 CBS 뉴스
<b>제주CBS FM 93.3MHz 90.3MHz</b>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스투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대거전 18:05 달리는 라디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 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1일**

김중상 지단(甲子)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곡동 교수(010-5233-6136)

**36년** 자녀에 관한 소식이나 경사스런 일이 있다. 집에 초대해도 원만하다. **48년** 마음 조절이 때론 필요하다. 가족간 불화나 성격차이로 갈등. **60년** 직장이나 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지연. **72년** 강압이 부드러움에 패하는 격. 부부애정 흥. **84년** 친구나 동료의 도움이 크다. 대인관계에 힘을 쏟아라.

**42년** 외출이나 모임에 참석할 일이 생긴다. **54년** 동료나 거래처의 도움이 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66년** 돈 문제로 불화가 오거나 직장 이동수가 있다. **78년** 직장이나 조직생활자는 불만이 많아진다. 내 눈높이를 낮추고 겸손하라. **90년** 휴식이 필요하고 외출은 부적절하다.

**37년** 여기저기서 들은 이가 많이 일은 성사되고 질병은 회복. **49년** 명예 또는 감투 쓸 일이 생기거나 리더자로 인정받는다. **61년** 슬럼프 뒤에는 기쁨이 온다. 좋은 소식이 찾아온다. **73년** 취업, 직장소식을 접하거나 이성교제 걸. **85년** 어려운면 도움을 청하라. 내 뜻이 성사되고 이뤄진다.

**43년** 친구나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 좋다. **55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 법. 변통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67년**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겨도 서두르면 더 큰 화가 된다. **79년** 취업이나 영입성과가 나타나고, 새로운 인성이 나타난다. **91년** 결단과 용기가 동시에 필요하다. 실천하라.

**38년** 모임이 있으면 참석. 다만 술은 주량만큼만. **50년** 돈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진다. 가정화와 우려패, 조용한 추진이 필요하다. **62년** 자식 문제가 발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교통사고 주의. **74년** 밝은 표정으로 상사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사랑을 받는다. **86년** 의견다툼이 있다. 변명보다는 수용의 자세 필요.

**44년** 무리수가 오니 확장이나 이전은 보류하라. **56년** 아랫사람이나 자식의 문제로 할 일이 많아지고 바쁘다. **68년** 소망하는 일이 되려다 방해자가 생기니 조심. **80년** 친구들과 이성 삼각관계 심화. 무리수를 두지 마라. 시간이 해결. **92년** 성과가 작아도 한 만큼 이익이라는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

**39년** 자녀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속 태우지마라. **51년** 각종 인허가 계약에 관계된 업무는 순탄하다. **63년** 내 아이디어가 인정을 받거나 계획하는 일이 발전이 있게 된다. **75년** 능력을 인정받게 되니 기쁨이 호사다마 있으니 주의. **87년** 부모님의 걱정이 있으나, 긍정사고로 좋은 결과를 만든다.

**45년** 주변 오는 것이 있으니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온다. **57년** 뒷사람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라. **69년** 직장이나 하던 일에서 잠시 휴식을 갖자. **81년** 돈의 문제가 발생하니 도난주의. 돈 거래하지 마라. **93년** 형제 또는 동료의 도움 협조가 필요하다.

**40년** 몸과 마음이 허전하다. 친구나 취미동호회가 필요하다. **52년** 덕을 쌓는 지혜가 필요하다. 봉사할 일이 생긴다. **64년** 생각은 많이 결정하는데 망설인다. 신속한 결정이 인정받는다. **76년** 신용함과 여유를 가져야 손해가 적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88년**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안타깝다. 밖으로 활동하면 이익 있다.

**46년** 충동적인 생각이 일을 망치니 신중한 생각보다는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58년** 읍주 또는 밤 늦게 귀가하면 불리하다. 운전은 자제. **70년** 일의 성사 어렵고, 이성교제가 있어도 내 맘을 채워주지 못한다. **82년** 새로운 추구를 하거나 무언가 갈망하는 하루가 된다. **94년** 친구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

**41년** 체면과 명예에 얽매어 실익을 미약하다. **53년** 재물이 있지만 투기는 신중해야 한다. **65년** 영입이나 생산에 활력이 생기고 결과가 함께 하니 분주함이 오히려 즐겁다. **77년** 선택의 갈등이 있다. 안전사고 조심. **89년** 자신감이 있어도 자만함을 나를 초라하게 만드니 자랑은 자제할 것.

**47년** 돈이 안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고달프다. **59년** 직장문제 지연. 자녀로 인한 고민이 가득. 전문가와 상의. **71년** 영입이 다소 호전되나 부지런함이 최고이다. 승진 또는 행운이 있다. **83년** 당장 힘들다고 행동하는 것보다 인내 필요하다. **95년** 의견이 맞지 않거나 주변사람과는 정한다.